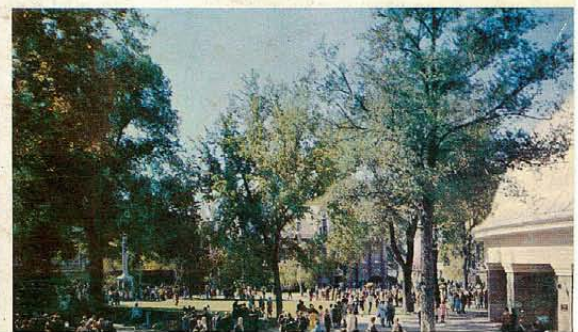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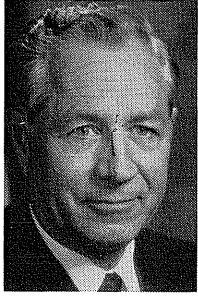




성도의 빛 5
1971

특집 : 제140차 반연차 대회 말씀





영감의 메시지

엘드레드 지 스미스
교회 축복사

주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사탄이 매이게 될 복천년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수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계시록 20: 1-3) 루시퍼 곧 악마인 사단이 결박당하게 되므로서 복천년 동안 이 땅에 있게 될 영광스럽고 놀라운 여건을 암시한 경전의 말씀은 이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가 “쇠사슬에 결박당할” 것이라 하였으며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모두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가들만한 쇠사슬이나 끝이 없는 못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하거나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의 힘은 의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시작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유혹을 이겨냈으므로 사단이 감히 그를 어찌지 못하였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동안 떠나니라”(누가 4: 13) 유혹이 전혀 유혹이 되지 못할만큼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되었을 때 비로써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권세를 잃는 것이며 우리가 사단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만큼 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데 전혀 짐스럽지 않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사단을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거나 순결의 법을 지키거나 기타 다른 복음의 법을 지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철저히 면에서 속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을 결박해야 하며 결코 복천년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5월 1일
통권 제70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제 7 권 제 5 호 순 서 1971년 5월 호

특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0차 반연차대회의 말씀

| | |
|-----------------------------|--------------------------|
| 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지이다 | 조셉 필딩 스미스.....1 |
|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 헤롤드 비이 리4 |
| “화 있을진저...위선자여” | 엘 엘돈 테너.....8 |
| 메뚜기가 먹은 햇수 | 스펜서 더블류 킴볼.....12 |
| 가족의 강화 | 에즈라 테프트 벤슨20 |
| 저들은 우리를 신임하는가? | 로렌 시이 던.....24 |
| 가족과 울타리 | 보이드 케이 패커26 |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조셉 필딩 스미스29 |
| ■ 어린이 차지: 크거나 작거나 | 루스 에이치 런그렌.....15 |
| | 너의 말로도 족하다 버나틴 비티.....17 |
| ■ 관리 감독 페이지: 세상에서 살되 속되지 않게 | 존 에이치 반덴버그 ...19 |
| ■ 선교부장 메시지: 지부가 강하게 되려면 | 서 현보.....30 |
| ■ 내외소식 |31 |
| ■ 진리의 말씀: “내게 어제를 주십시오” | 리차드 엘 이반스.....표 4 |

표지 설명: 이달의 표지 사진에서 우리는 발전하는 교회를 볼 수 있다. 새로이 짓고 있는 교회 본부 건물을 솔트레이크 신전과 함께 넣었다. 교회 회원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건축한 때는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여 왔다. 작은 사진은 1970년 10월 대회에서 찍은 것으로 역시 건축하고 발전하며 뜻 깊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회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지어다”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40차 연차대회를 맞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한 영과 진리 가운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바라옵기는 이 대회 이 모임에 그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훌륭한 신앙과 선한 마음과 성실을 갖추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에 대하여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간구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간증을 전하고 교리를 강론하며 감사를 드리는 일로 나의 음성을 높여 말씀드리게 되었으니 특권과 같은 은혜와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육십년 이상을 본인은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제명을 지키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계시로 우리에게 정해진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권하여 받아들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을 두고 나는 경전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사고 간구하여 왔습니다. 주는 내게 선하게 대하여 주셨으며 나는 주가 주신 지혜와 특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였고 그의 구원의 원리를 강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와 다른 복음의 형제들이 여러 해를 두고 복음을 가르쳐 온 방법이 그토록 통일되고 조화될 수 있었던가에 새삼스러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과 같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습니다.

이미 이제까지 내가 가르치고 기록한 것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가르치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되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형제나 교회의 장로들도 참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그리스도의 교역자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는 그의 사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교성 1:20, 23)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부르신 자와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와 제사와 교사”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들은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다른 경전도 가르치라.” (교성 42:11-13참조)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의 이론이나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라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전에 계시되어 기록된 구원의 교리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표준 경전에 기록된 것과 영이 인도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라고 지시하신 다음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14)

이 계시의 뜻에 부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복음을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그 힘과 에너지와

사용 방법을 효과 있게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읍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었습니다. 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친히 만드신 분입니다. 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신앙개조 3조)

어느 세대이거나를 막론하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는 주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 받는 중계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선지자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며 또한 저들을 인도하는 합당한 교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열쇠와 권능을 전해 주시려고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 5:10) 또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에 관하여서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요셉 스미스서 1:31)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대속의 희생을 이루시었습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 11:25)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사불멸로 일어서며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로 전달받아 합당한 교역자로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는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하늘로부터 온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계시된 진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로나이가 기록한 다음의 이야기는 전혀 이상스럽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요셉 스미스 2:33)

후에 주님께서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은 아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바야흐로 세상의 끝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으며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예수에 대한 간증은 미국, 캐나다, 영국, 구라파 제국, 태평양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섬, 나라 등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해 동안에는 멕시코 지방, 미대륙 중부지방, 남미 제국 등에서 믿을 수 없을만큼 활발하게 포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아세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찌기 보지 못했던 괄목할 복음에의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는 확고한 교회의 토대가 잡혔고 태국, 싱가포르, 인도지나 등지에서도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많은 나라가 문을 열어 우리를 맞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런 나라에 들어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땅에 소개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일하고 있고 더 많은 유능한 선교사가 위대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합당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의 뜻대로 정리한 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에 응하여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일하고 있는 자매의 수도 많고 또 비록 자매들에게는 형제의 경우와 같은 무거운 책임이 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자매가 나와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매에 관하여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신전에서, 결혼 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위대한 선교사업에 재정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권고하며 기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수단을 자의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업을 위하여 불처럼 나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일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3페이지)

이지)

우리는 온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저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저들에게 주를 저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며 아울러 그를 영과 진리¹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배해 줄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²로 받아들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이름으로 그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로 물의 침례로서 성약을 나누며 하나님의 권세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부터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화평을 얻고 앞으로 세상에서도 화평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입회한 모든 사람과 교회 회원에게 교회에 입회하므로써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해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며 끝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 너희가 이 끈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계속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 할진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이 31: 19—20)

이 세상 사람에게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축복을 상속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침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권고보다 더 중요한 권고가 교회 회원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회개하여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들의 삶을 비치며 온갖 선하고 참된 원리를 좇으며 이 모든 것 위에 말일에 계시된 진리의 빛을 더 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여 복음의 축복을 추수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에게 의의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을 구하고 주를 사랑하며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여 주 앞에서³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교회에 속하였거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이 거룩하고 참되다는 나의 간증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1820년 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물문을 번역하였고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스스로 들어내 보이셨음”⁴을 증거하는 책이 세상에 전해졌음을 압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임을 압니다. 또한 현재의 교회의 조직과 기능이 주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의 지시하시는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요, 교회의 제반 행사를 주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이토록 거룩한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온 세상에 거하는 마음. 이 정직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선교사와 새로운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성공하기를 빌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과 자비로 살피시어 저들 마음에 의를 구하겠다는 열의를 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혼탁한 세상에 사는 젊은이와 교회의 젊은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복음의 표준이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때를 사는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들 개개인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선하심과 축복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

1. 요한 4: 24 참조

2. 요한 1: 14

3. 빌립보 2: 12참조

4. 물문경 서문 참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헤럴드 비이 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및 대관장단 제일보좌

●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가공할 일— 정치적인 일, 전쟁과 도처에서의 다툼, 부모들의 불안,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상의 어지러운 물결,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저들의 도덕과 신앙을 방해하는 혼란— 들을 보거나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권속이 주의 길 안에서 무한한 안전과 무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격동의 이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아픈 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밀어 닥치는 엄청난 혼란과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전해진 예언의 가르침에 익숙한 자는 모든 것이 격동으로만 보이는 오늘날의 세상 형편

에 대하여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전해진 예언의 뜻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두고 감동으로 계시 받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때가 가까왔고 이 땅에서 평화가 떠나며 악마가 그의 제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성 1:35 참조) 이 시대의 예언자들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은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오심을 연기하시리라.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 (교성 45:26-27)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가 다시 오실 때

의 징조가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신대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위에 큰 환난이 있으며

그날이 속히 임하며 육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없고

이르신대로 성약에 따라 날이 속히 임하며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고 왕국은 왕국을 대적하며 기근과 질병과 구심으로 부터의 지진이 있으리라.” (영감역 마 24:18-20, 30 요셉 스미스서 1:18-20, 29 참조)

구세주께서 “인간이 그 부친을 대적하고 딸이 그 모친에 대항하며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대항하리라.”는 예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 10:35-36 참조)

이러한 모든 사태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하고 나면 이런 의문을 갖

게 됩니다. 고난과 커다란 슬픔에 쌓인 자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며 흥흥하게 밀어오는 “폭풍 중에 피난처”¹를 어디서 구해야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주가 주의 성도를 다스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이 세상에 내려오리라고 선포하시는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안전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교성 1:36 참조)

주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 24:42, 44)

주는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간악한 무리는 소리를 높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교성 45:32)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인용한 주님의 약속을 전제로 나는 잠시 동안, 개개인이 순종하므로서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계획은 “주님께서 그의 성도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로 약속”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이미 이 계획과 계획의 목적이 교회에 알려져 선포되었습니다.

약 일세기 이전에 주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는 사자가 되게 하였

느니라.”(교성 45:9)

이 계획은 하나의 성약으로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사람에게 효용을 갖는 계약입니다. 아울러 이 계획은 모든 주의 권속과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뜻은 만인의 요구에 준하여 기여하고 세상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계획의 성안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모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경전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곧 엘로힘이 그곳에 계셨고, 장자 여호와와 아브라함,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위대한 인물도 그곳에 있었다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 —후에는 영이 된 —수많은 정리된 예지가 그곳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행함이 고상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영은 그렇게 하므로서 영원한 계

5—6)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에게서”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점과 그리스도와 과련하여서는 “말미암아”라고 한 점에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된 말씀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서 4 참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을 놓고 이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대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 기록된 천국 회의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와의 안내로 땅과 그안의 모든 것이 조직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분께서 땅을 “명하셨고” “관리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의논하시면서” 인간을 지상에 보내시는 일과 땅의 온갖 것을 두시는 일을



획을 이끌어 나가는 일의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

정리하셨고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인간이 “불사 불멸의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일을 다하여 계획을 이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계명에 순종하므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해의 영광의 처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3:25 참조)

1. 이사야 25:4 참조

2. 아브라함서 4:16-18, 26 참조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므로써 “자유와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복하여 영적인 “속박과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 2: 27 참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다음으로 큰 은사는 자유 의지이며 이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둘째번 지체로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미대륙에 있었던 위대한 예언자였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경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짝함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었고, 하나는 달게 하시며 다른 것은 쓰게 하셨느니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이 2: 15-16)

자유의지

둘째번으로 중요한 원칙은 밤모습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대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양”처럼 (계시록 13: 8) 세상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이유로서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지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은 “...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이며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나이 2: 9 참조)

우리는 자비로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극히 제한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다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자비의 참된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앎이라.” (나이 25: 23)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대속주가 홀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대속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세째번으로 중요한 원리는 “모든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하므로써 구원을 얻는다.”는(신앙개조3)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율법과 의식을 통하여 구원이 쟁취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죄의 회개,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의 행동에서 손을 떼고 다시는 이를 범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주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82: 7)

셋째, 구세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밤 물과 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며 이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 4~5참조)

부활하신 몸으로 신 대륙에 나타나신 구세주께서는 이와같은 메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로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구세주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복음이요.....” (니삼 27: 19: 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적이나 피부 색이나 혈통을 불문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들은 모두 정한 때에 주를 보고 그가 주인줄 알며 부르심과 세우심의 뜻이 분명해 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성 84: 34)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이 약속은 구세주가 말씀하신 방탕한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충실하여 자기의 물려 받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은 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아 늘 나와 함께 있으라. 나의 모든 소유가 바로 너의 것이라.” (눅 15: 31)고 하셨습니다.

근대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 지리라.” (교성 84: 38)

그렇지 않으면 이미 위험 수역을 지난 채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급류로 향하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강지기의 경고의 함성은 아예 외면한 채 저들은 웃고 춤추고 마시고 조롱하면서 자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좁고 험한 길”⁵이라고 간결하게 가

4. 베드로후서 1: 10 참조

5. 마태 7: 14 참조

르치신 당신을 조롱하며 미쳐버린 세대의 백성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오! 우리가 그의 외침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가 외치신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 23 : 37)

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시자 요한에게 비유로 전하셨으니 이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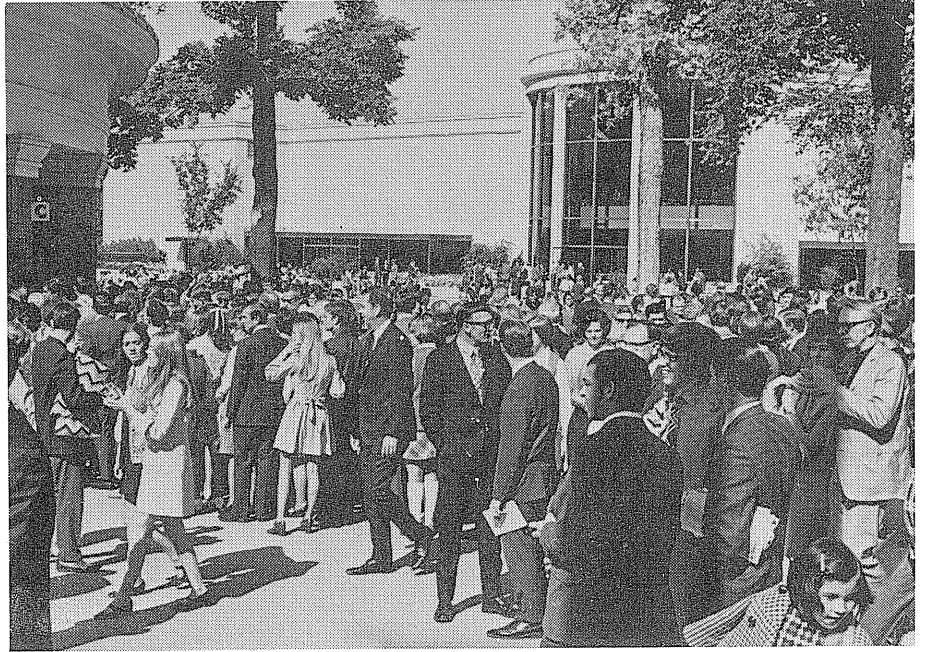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 : 20—21)

그러면 여기에 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엡 2 : 20)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로 한 참된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세상이⁶ 화평을 얻지도 못하며, 세상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가 모두를 이기신 것처럼 모두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위에 말한 모두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나는 어린 소녀가 전하는 펍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난치의 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던 그녀의 아빠가 하루 아침은 엄마에게 간 밤의 고통



과 괴로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주 감동적인 음성으로 “여보, 내게 다시 하루가 주어졌으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어머니의 물음에 아빠는, “당신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음성을 방종으로 듣고 제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로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간청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일을 하루 더 돌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며 철부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도움은 요청하는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⁷ 준비를 하루 더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살겠다고 애쓰지 말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구하도록 합시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태 6 : 34)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는 부족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던지 “필요한 일은 다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시 시립 음악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결정적인 운명은 과연 그가 새로운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적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배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결정된다.”

이 지혜의 글귀를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해하여 정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로서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 열과 성을 다바치고, 여러분의 몸은 빛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깃들지 않아 마지막에 는 모두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성 88 : 67)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6. 요한 14 : 27 참조

7. 열 34 : 32 참조

“화 있을진저…위선자여”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단 제이보좌

●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완전히 신임해도 좋을 사람이 지나가네. 저 사람은 늘 앞 뒤가 분명하거든. 절대로 착하는 법이 없고 늘 성실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말일세.”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글쎄 저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겠단 말일세.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좋을 잡을 수 없거든. 주님께서 아마 저런 녀석을 위선자라고 하실걸세.” 나도 그 친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회의 성도 수는 약 삼백만으로 그 중에는 자기의 모두를 다 바쳐 이웃과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아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 사람도, 사는 곳에서 활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지조차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대하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복음의 원리를 정직하고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 척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가를 가르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진리 몇 개를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한 11:25-26)

또한 주는 그를 시험하려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율법 중에 큰 계명이 오니까?”라는 질문에 주는 “너희 주하나님을 너의 온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36-40)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 1:27)는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너무

도 분명하여 그 뜻을 확대시켜야 한 다거나 의혹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산상 수훈도 그것이 인류에게 주시는 구세주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며 다만 우리는 주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영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이끌어 가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이끌어 가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신앙개조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아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니라.”(마태 7:21)

말일에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치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

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교성 89 : 18—21)

우리는 믿음에 참되고 간악함과 위선을 경계하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사실상 구세주께서는 위선이라는 사악함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한 입으로는 이 말하고 돌아서서는 딴짓을 하는 자에게 주는 참으로 무서운 저주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 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너희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태 23 : 29, 33)

“화 있을 찌저”란 말은 사전에는 깊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에 당면한 처참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란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자요 종교와 덕성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거짓으로 집짓 행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세주는 위선자를 여러 가지로 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 찌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위선자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위선자에게 내려지는 정죄를 살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보면 이 위선이라는 것과 범법의 사조가 오늘날과 같은 압담함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 고자 하려 하나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과부의 것을 노략질하고 남이 들으라고 길게 기도하며 이로써 무서운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 찌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도다.”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마태 23 : 4—8, 14, 23—25, 27—30)

우리는 위에 언급한 사항이 우리가 갖는 기독교 생활에도 물들지 않았나 살펴야겠습니다. 옛날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동포애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남을 질시와 다툼으로만 대하여 눈에 보이는 이단은 배제하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신적인 이단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법조문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의 정신을 망각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

면적인 행동에 마음을 더 둔니까, 아니면 마음 속의 자세에 더 신경을 쏟니까? 마음 속을 정결케 하는 유일의 방법은 악을 떠나 겸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좇아 생활하여 순결한 마음을 갖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명의 구조가 회칠한 무덤같다는 위험은 없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기계와 높은 건물과 그밖에 발전의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에는 쉬지 못한 피로와 나라와 국민간의 전쟁과 영영 빼어 버리지 못한 가난이라는 짐과 참담한 전쟁의 희생이 된 자들의 뼈만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 회칠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다.”

최악이 창궐하고 인구의 증가로 전원이 대도시가 되며 도덕의 기준은 점점 타락하고 외설 영화와 문학이 요란하게 휘몰아쳐도 우리는 의를 위하여 의를 지켜 굳게 서야 겠습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불행을 자초케 하는 약의 사용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용을 금해야 겠습니다. 어른의 생활에 비치는 위선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로서 반항 의식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술 마시고 또 기타 가증한 짓을 자행하는 어른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아이들을 저지하려 할 때의 위선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합당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법으로 정하던가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젊은 시민이 사악한 버릇에 사로잡히는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라 하겠으며 이

미 제물이 된 사람을 구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한치도 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음하는 자, 약을 남용하는 자, 감옥에서 반성하려 하는 자 등을 도와 일 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인이라 하겠으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불행에 빠진 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어디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엄격하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과음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에게 예절 바르고 교회 집회에도 잘 참석하면서 사회의 평등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대를 나누는 이웃에게 불공평하고 부정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의 복리와 평안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여 먹이고 입히며 가난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를 위로해 줍니까? 선지자 엘마는 그 시절에 “백성들 간에 큰 차별이 생기는 것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백성을 크게 슬프게 하였으나 한편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있어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었으니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예언의 영에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며”(엘 14 : 12—13)

최근에 그 형태와 조직과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상호 부조회는 저들의 주 사업인 시온의 딸과 어머니

의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복리를 살피고 마련하는 일에 더욱 큰 노력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여성에게 훌륭한 주부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조직에 속한 자매들은 일주에 수천 시간을 자선 봉사에 바치며 일하고 있으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들고 외로운 사람의 수는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적인 환락과 물욕을 충족시키겠다는 이기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훌륭한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교회 집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등의 종교 활동에 등한히 하면서도 남의 활동을 예로들어 나도 저만큼은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변명하려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호수거나 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 봅시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 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교



성 59:9-11)

우리는 복음이나 우리 인생의 어느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갖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획 정리하여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태 23:23)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랑을 주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이고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서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 즉 우리 모두는 우리들 개개인의 집을 정연하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리 에머슨 호스티크(1878-1969 미국작가)는 두 가지 형태의 위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실제의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고 다른 하나는 실제의 자기보다 부족하게 보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보다 과장해 보이려는 위선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속으로는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 회원을 의의로 자주 봅니다. 이러한 류의 위선은 호스티크가 이야기한 후자의 위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후자의 위선도 전자의 것 만큼이나 심각하며 쉽게 존경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일어서서 신앙의 간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는 때야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표준과 스스로의 확신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조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 존경받게 됩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하므로서 정당하고 양심적인 사람의 적대감을 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와 그의 아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네들은 비활동 회원이 되었고 교회에 참석도 안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선교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의롭고 훌륭한 좋은 본보기였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어 신앙도 잃고 교회에 대한 참여 의식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줍니다. 첫째, 우리는 마땅히 합당한 생활을 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위선으로서 저들의 신앙에 회의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점. 둘째, 다른 사람의 위선적인 생활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결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경계하자는 점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의와 진리를 위하여 굳게 단결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노라고 선포하였으며 악덕에 대항하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약하여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 부딪쳐야 하겠습니까? 의를 구하여야 합니까,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보다는 입술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며 정치적인

권세를 얻고자 행동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한 12:42-43)

우리 회원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회원 삼백만을 가진 우리 교회의 위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 진정한 뜻에서 참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덕스럽고 인자하고 유덕하고 사랑받고 칭찬²받을 만한 일에 종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모으고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옛적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같이 가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저들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아프게 하였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거역하였고 구세주는 그리하여 우리의 이곳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위선자를 꾸짖으신 바 다음과 같은 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태 23:38-39)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살아 계시신 하나님³의 아들 그리스도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뜻대로 살기만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알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1. 야고보 1:6 참조
2. 신앙개조 13조 참조
3. 마태복음 16:16 참조

메뚜기가 먹은 햇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대리

● 나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언어가 다른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토록 성스러운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이 대회장 앞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화강암 기념비가 서 있고 기념비 위에 얹힌 바위 공 위에는 구리로 만든 갈매기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 앞에 서서 이곳을 찾아온 수천의 관광객들이 “물몬 개척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리로 된 갈매기의 날개는 온 세상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듯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갈매기가 앉아 있는 바위 공은 전 세계적인 교회를 암시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굴러내려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다니엘의 꿈을 뜻하고 있습니다¹.

기념비 판에는 황량한 처녀지와 그곳에서 맨손으로 가축을 부리며 곡식을 심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곤충의 습격과 이 습격을 받은 절망에 빠진 인간의 땅으로 꺼져 버릴 듯한 모습이 역력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절망적이고 여자는 기진한 채로 담담한 하늘로 머리를 젖힌 채 서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위로 날아드는 갈매기를 봅니다.

아예 폐허로 짓밟으려 저들이 오는 것일까? 갈매기의 승리와 남은 곡식을 걸어 들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재난을 면한 것입니다.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방아깨비로 인간에게 재난의 벌을 내리신 것이 애굽인의 경우가 첫 번째가 아니며 물몬의 재난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몇년 전 우리 일행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곳 사람들이 “인간이 완전히 짐을 뺏겼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배는 떠나버렸네!”라는 뜻을 우리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경전에서는 “메뚜기가 먹은 햇수”(요엘 2:25)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예민한 촉각과 간 뒷다리와 넓적한 넓적다리를 가진 대가족의 곤충으로 넓적다리로는 앞날개를 비벼서 내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답니다. 이들은 물 속이나 응달진 곳에 알을 까며 한낮에 하늘로 날아 오르면 햇빛을 가릴만큼 끈적끈적한 기세로 번식해 나갑니다. 이 곤충의 무리가 세계 여러 곳을 침입했듯이 미국 서부를 강타하여 수천만 달라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재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곤충은 유타의 메뚜기 전

쟁과 함께 애굽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남겨 놓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그의 노예 군대를 풀어 줄 것을 간청하기도 하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왕은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일적마다 왕은 풀어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일단 재난이 물러가면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출 10:3) 계속하여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땅을 덮으며...무수한 파리 떼가 ...애굽 전국에 이르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고...” 모세가 뿌린 재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애굽 온 땅에서...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찢으며... 들에 있는 삼과 보리가 상하였습니다.” (출 7:20, 8:6, 24, 16, 9:10, 23, 25, 31)

바로왕이 계속하여 거절하므로 모세가 다시 주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 교성 65:2 참조.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출 10:3-4)

“네가 많은 유자를 들에 심을찌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신명기 28:38)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으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출 10:13,15)

벌레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은 나방이가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햇수”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잃어버린 주말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상실된 세월을 연상하게 됩니다.

몇년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먼 곳에서 내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회원 기록철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안내로 교회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침례가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의 전부를 철저히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교육적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내가 어디에 매이게 되었는가를 인식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금하는 네가지 즉 담배, 술, 커피, 차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격상으로 나는 타인의 울타리에 쌓여야만 편안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동료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전혀 저들과 융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일요일의 세시간 내지 다섯 시간을 주일학교에 바친다거나 소득의 십분의 일을 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나의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문제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야겠습니다.오직 저의 불찰일 뿐입니다. 저의 마지막 결단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참으로 그의 마지막 결단은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가 세속으로 몸을 돌이킨 이상 해마다 메뚜기와 누에와 나방이가 먹어버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날서너 시간을 주일학교에 바친다거나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전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네가지를 갖고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르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레방아간의 공이는 이미 흘러가버린 물로는 돌리지 못한다.”(오리슨 에스 마르텐, 앞으로 돌진 제1권 13페이지)

몇년 전에 새로 교회의 회원이 된 가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가 회원이 된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두 달”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뭇 긴장하면서 회의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끝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찍 속했다라면 한 평생을 이토록 행복하게 살아왔을 게 아닙니까!” 메뚜기가 저들의 그전 세월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옛 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해 준다면 ‘아,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하던가 ‘아,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고 말 할 것이다.”

(마르텐 15페이지)

1834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고등 평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때 엘 디이 영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참으로 커다란 잘못을 범했으며 이를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예언자는 내게 평의회에 뽑힌 형제들과 함께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토록 과중한 책임을 맡을 만큼 능력이 없노라고 내 판에는 제법 성실한 태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언자는 간단하게 내가 그 직책을 맡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내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예언자는 다른 형제를 불러 그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생각컨대 이 일로 해서 그후 예언자는 다시는 나를 신권의 중책의 자리에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후로 나는 부름을 받는대로 응하고 이 왕국을 지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의 뜻에 대항하여 나 개인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메뚜기의 농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실한 여러 해 동안의 기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태이크 부장이 와드 감독으로 부르자 좌불안석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드디어는 그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종으로 인간의 지도자가 되고 다스릴 특권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스타이크 부장은 그 사람이 겸손해서 머뭇거리는 줄 알고 설득 시키려 했지만 끝내 그의 결심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수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말틴 해

리스 등 귀한 기회를 외면한 채 마음을 단았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던져버린 말(이야기), 쏘아 버린 화살, 지나간 인생, 그리고 소홀히 해서 지나간 기회...”(마르텐 67페이지)

내가 아는 교회 회원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비회원인 미모의 여자와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혼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일반 사회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교회로 인도하려 하였고 그녀는 몇배나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권이나 영원한 결혼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세월은 덧없이 지나서 자녀가 생기고 저들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기회는 지났고 세월이, 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세월이 마치 번개의 날개처럼 속히 지나버린 것입니다. 역시 메뚜기가 먹은 세월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사에는 절기가 있는 법이니 때로는 행운이 깃들기도 하고 인생의 항해가 속박된 채 비참할 때도 있도라.”

우리는 닳치는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소중함을 진진다.”

(줄리어스 씨자 4막 3장)

메뚜기는 도처에 언제라도 있습니다. 문명은 이미 누에에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¹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은 시간으로 지어진 것이니”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허송한 까닭에 이제든 시간이 나를 허송하고 있으.”
(세익스피어)

2.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작가.

“영원 그 자체도 지나간 단 일분을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옛말)

내가 어렸을 때 세상 결혼으로 맺어진 젊은 부부를 펴 인상 깊게 대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신랑은 의모도 미끈했고 좋은 말과 고무 바퀴를 단 훌륭한 마차도 가졌으며 돈도 많았습니다. 신부는 “미인중의 미인”으로서 집안도 부유하여 그녀가 입는 옷이나 그녀의 인기는 다른 여자의 선망의 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그야말로 호화판의 본보기였습니다.

양가에는 자녀가 많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들 젊은 부부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수술을 해서— 전혀 이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승마를 하고 무도회를 갖는 저들의 즐거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들은 늙었고 늙은 후에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작은 마을 중심가에 사는 그 부인은 매일 우편국과 식품점에 들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세월은 이 부인의 등을 구부러지게 했고 부인의 걸음은 지팡이를 의지해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나 언니는 대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를 방문하는 횟수가 적었고 방문한다 해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읽는 일도 수월치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자주 찾지 않았고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지나던 사람이 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지가 여러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는 죽을 때도 홀로였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효성스런 자녀도,

그를 물어 줄 자식도, 그리고 눈물이나 애도함이 없이— 그는 홀로였습니다. 이 부부는 세월을 허송한 것입니다. 이들의 세월도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이 아닐까요?

“운명이란 그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부에 있다.”

스스로 그대의 스스로를 개척하라”(마르텐 404페이지)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갖지 않으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이 그의 날개로 인간을 비벼대지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칼지 메이저의 이야기를 살펴 봅시다.

“책들이 찢어지고 나의 수호신이 옆에 서서 책을 열며 내게 ‘보라’라고 할 것이며 나는 ‘참 아름답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그대가 누릴 수도 있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며 책장을 넘기면서 ‘여기 그대의 참 모습이 있노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상실된 기회로 가득합니다. 주로 이번 대회에서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한 사람의 불운한 결말과 그들이 상급학교나 직장에서 거부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약을 남용하고 도덕의 표준을 헛 신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 실패한 사람과 선교의 부름을 상실한 사람, 영원한 결혼 대신 세상의 결혼을 택한 사람, 인류 문명의 불가결의 요소인 자손을 갖지 않으려 약이나 기타 방법을 채택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모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쟁취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가족의 강화

에즈라 테프트 벤슨

(십이 사도 정원회)

● 우리는 인간으로서 세곳에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하고 가족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하자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구원은 가족의 단위로 행해져야 하며그러므로 가족의 단위는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된다.”고 한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크게는 가족을 도우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러한 사명을 교회는 이미 오래도록 이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훌륭한 장군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이나 기타 세상적인 쾌락의 추구에 자기 가정에다 쏟는 정열보다 더 큰 정열을 쏟는다면 그 시간부터 자기의 영혼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이점에 관해서 바로 어제 헤롤드 비이 리 장로께서는, “교회는 각 가정이 가정으로의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도록 더욱 잘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는 이래 오늘날과 같이 유혹과 위험과 교회의 성도들을 의와 의무의 길에서 실족시키려는 온갖 술수가 창궐했던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스스로 주의하라. 127페이지) 이어서 그는 “세상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오직 악이 증가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책 207페이지)

악마의 결속이 이토록 정연했던 때가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악마가 무기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우리의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적도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생과 진리, 명예, 덕성, 극기, 교육의 가치, 정직한 일, 인생의 목적과 권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제일의 처소가 된다.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데는 가정보다 더 훌륭한 장소는 없으며 만일 가정에서 실패하는 경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테비이드 오 벅케이 대관장, 1968-69용 가정의 밤 교재 서문중에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무섭게 작용하는 가운데 악마는 가정에서의 가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파괴하려 하고 자식들에게는 반항의 불길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물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 백성의 학대자가 되며.....”여러분은 특히 위정자들이 산아 제한이나 가족 계획을 열심히 권할 때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 경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로 그릇 행하게 하며 너희 길을 험어 버리게 하리라.”(나이 13:12) 특별히 자매들께 강조하거니와 여러

분이 만약 인공 유산을 한다면가
건강한 아기를 더 갖지 않도록 수
술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승영
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
왕국에서의 거주권을 위태롭게 하
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의롭게 길러야 할 직접적
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며
부모는 이 책임을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나 학교 기타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되
시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자유롭
게만 길러서는 안됩니다. 마음껏
활개를 띄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어기는 하지만 저들이 언제 질리
와 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를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나 한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살
핍과 경계를 깨우려 해서는 안되겠
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신권의 정
신으로 따듯하게 다스리되 진정 여
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바로 다스려야 하겠습
니다.” 부모가 너무 호락호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망대에 올라선 파수군의 입장에
서(왕하 9:17 참조) 여러분께 경고
하고자 하는 한가지 사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못 인도하고 가정의
단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매개
체가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릇
된 교육 이상은 교회 회원을 가장
무섭게 위협하는 삼대 악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교회가 젊
은이들에게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다니도록 권고하는, 종교 학원이 있
는 대학에 다니라고 권고하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들과 좀더 친
숙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게 되며 만일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작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님이 권고하신대로 딸았다면 싱

문드 프로이드나 칼스 다윈이나 존
두이나 칼 막스나 존 키니같은 인
물이 부르짖는 주장의 허실을 똑바
로 자녀에게 지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과정을 완전히 끝내
주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자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 못된 일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초도덕관이나
파괴에 관한 이념에는 별로 신경
을 안쓰는 학교 당국자들의 무성의
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칼 지 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나의 자식을 우두나 장질부
사나 콜레라나 다른 질병에 감염되
도록 버려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패한 교사의 못된 영향을 받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하더라도 결
백한 선생이 낫지 불순하고 위대한
철학가는 질색입니다.”

통신 강좌나 직업 교육 혹은 가
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모색 등이
점점 더 자식을 가진 부모의 관심
을 끌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는 미국에
서 가장 큰 사립 대학교입니다. 부
모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브
리감 영 대학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거
나 간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
은 자녀를 가까이에서 지키고 가능
하다면 매일 대면하여 만사를 확인
하며 학교에서 그날 배운 것이라든
지 교과서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
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요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공
립학교 “과학” 교과서에 년센스를
취급하지 않은 책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32
페이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녀와 함께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검토하
고 거짓된 것을 배웠을 경우 함께 진

리를 탐구했던 훌륭한 아버지 한분
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못된 내용을 문제로 하는 시험 답안
을 작성할 때에는 요셉 필딩 스미
스 대관장님의 권고대로 답안을 쓰
기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라든가 “교과서에 의하면”이라
는 전체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근 어떤 부형이 학교 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신문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_____에게 보호자
의 허가 없이는 여하한 형태의 성
교육, 인체의 생리적 발전, 태도
개선, 자기 이해, 개인 생활 및 가
족 생활, 집단 치료, 감각 훈련, 자
기 비판 혹은 이에 따르는 여하한
유의 학설도 우리의 서면 승락서
없이 가르치지 말아 달라고 통
보해 드립니다.

우리는 학교 당국자의 방해나 상
반되는 견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
식을 지킨다는 부모의 권리를 발동
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도덕의 원칙
이라든가 성교육의 제문제를 가르
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감각 훈련, 집단 치
료, 자기 비판 등의 일반적인 개념
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로서 도덕의
표준을 저하시키고 자립 정신 대신
에 의존심을 기르게 되었으며 ‘HA
RD CONSENSUS’라는 집산주의
이념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아들) 말하기를 위
에 열거한 강의를 피하고 이 편지에
서 경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탄이 말일에 가족의 단위를 파
괴하려는 것을 주는 이미 아셨습
니다. 주는 세상의 법이 도색 문학
류도 용납하리라는 것도 아셨습
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의 선지자에게 영감으로 명하시 일
주에 한번씩 성도들이 가정의 밤 프
로그램을 갖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이 프로

그램이야 말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진 가장이 그 임무를 이행하는데 큰 힘을 덜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의 밤 순서를 일주에 한번 이상씩 갖는 성실한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영의 지시에 좇아 교재의 내용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도 하고 또 들어 있는 것을 빼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일주에 하루)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기도와 찬송가, 때로는 다른 노래를 함께 부르고 경전을 읽고 가사를 의논하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함께 놀이도 하고 집에서 만든 간단한 간식을 나누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 순서를 갖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를진대 큰 축복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신앙이 굳건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들을 위협하는 악의 영향과 유혹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1915년 4월 27일 임프르브먼트 이라 18권 734페이지, 대관장단)

자 그러면 오늘날의 젊은이를 위해서 어떠한 오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저속한 잡지나 저속한 음악판을 끌어 들임으로서 가정의 분위기를 저속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개의 저속한 음악은 도덕의 문란과 중독, 혁명, 무신론적 사상, 허무주의 등을 은폐된 언어로 그리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속한 음악의 내용을 아는 부모

는 도덕의 표준을 저하하고 시끄러우며 난잡하여 감각과 이지를 마비시키는 이것을 말리려 할 것이며 젊은이의 내부에 원시의 불길을 불이려는 소위 정글 리듬도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부대관장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위 근대 예술, 근대 문학, 근대 음악, 근대 연극 등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도덕의 표준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잠시 깊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뚝뚝하는 것이 정글 음악이라는 것을 겨우 아는 입장에서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뻘뻘합니다만 정글 음악이 그 이상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여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큰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1952년 12월 상호 부조회지 798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들의 표준을 원래의 높은 표준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절충하여 형편 없이 낮게 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향회 교실에서 갖는 음악이나 무용이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칭찬할만하고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근대의 소동을 연상케하는 짧은 스커트와 시끄러운 박자와 휘황한 전깃불과 어둠의 배합입니까?

우리의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과연 어린 존 웨슬러에게 일러 주신 그 어머니의 권고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들어봅시다.

“너는 기쁨이나 쾌락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판단하겠느냐? 그렇다면 다음의 규칙에 따르거라. 만일 어떤 것이 너의 판단의 능력을 둔

1. 신앙개조 13조 참조

화시키거나 양심의 부드러움과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방해하거나 끝 하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어 보아라. 의지의 힘을 꺾을 만큼 육체의 권세가 비등할 때 비록 그것이 네게는 고지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아라.”

과연 우리는 모로나이가 말한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였습니까?(모로 8:38) 교회의 보조 조직과 신권의 보조 조직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데 있어서 부모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꺾어진 십자가나 반기독교를 뜻하는 표지나 소위 “평화 운동”의 상징이라는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호세아는 탄식하였습니다.(호세아 4:6) 오늘날 일부의 부모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권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녀에게 전하지 않는 까닭에 저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파괴하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법과 처리하는 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야 할 시간이며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말라기 4:6 참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을 맡은 부인이 집 밖에서 일하므로 종종 이혼의 씨가 심어지기도 하고 자녀의 축복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돈 보다는 어머니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만큼 가족은 서로 더욱 유대를 긴밀

히 해야 할 것이며 가족의 결속을 시급히 이루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혹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사 사랑하고 가르치고 부양하도록 하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너무 빈번한 사회 활동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안다.”

자 그러니 가족의 결속을 강화함시다.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순서를 정하여 가령 경전을 특히 몰

론경을 읽는다던가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게 한다면 그 식사 시간은 육신을 먹이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도 먹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아버지로서는 밥—자는 시간이 자녀의 침대를 찾아가 만나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되며 이때에 개별적으로 잠시 이야기해 주고 질문에 답해 주며,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에는 소위 “세대의 차”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차”라는 어휘는 가정의 결속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도구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

식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안전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길을 따르고 악마의 간계를 물리침으로서 가족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러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승영의 집에서 만나 사랑하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하여 결상이 모두 찻읍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 ○



저들은 우리를 신임하는가?

로렌 시이 던

칠십일 제일 정원회 회장

● 저는 숲의 방랑자가 들려준, 국제 국립 공원으로 야생 사진을 찍으러 왔던 어떤 여행자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영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는 그가 찾아다니던, 새끼 곰 두마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반은 놀이로 반은 먹이를 찾아 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행자는 얼른 카메라를 움켜잡고 몇개의 연속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볼 양으로 급히 서두렸고 그만 그는 서두는 바람에 새끼 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미 곰이 과히 멀지 않은 곳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놀이에 열중한 새끼 곰의 근접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던 그는 자기도 모르는 결에 새끼 곰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 숲에 비켜선 어미 곰의 중간 지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곰은 즉시 몸을 날려 새끼 곰 쪽으로 달려 갔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여행자를 피하라고 일러주어 그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몸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 말할 수 없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와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행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모가 남의 집 문전에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더 끔직한 죄악이 자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도덕의 표준을 무시하며 부모가 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저들의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할 때 자식들이 철저히 거부하고 대항하면 그 자식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남의 문전에 버려진 자식은 당국의 보호를 받게 되고 대개는 아이가 없는 집에 양자로 입적되어 친자식과 같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뜻에 거역하고 탈선하여 부모의 저버림을 당한 아이들은 남의 문전에 버려지는 아이들 보다는 훨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고난이란 반드시 있는 법인데 만일 저들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부모가 외면한 그 자식들을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우리가 둘러보는 이 시대의 참상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더러는 이미 문제를 한아름 안고 또 더러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옳바로 이해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는 안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반항하거나 방황하는 수천개의 이유를 이 사회는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저들에게 생명을 준 부모, 곧 저들을 철저히 부양하고 돌보지 않음으로서 저들을 버리게 한 그 부

모에게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용모가 단정하고 걸로 퍼 좋은 인상을 주는 미모의 소녀가 나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의 생김새나 차림새와는 달리 그의 이야기는 단정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십대에 이미 그는 약에 손을 댔고 한때는 사정이 험해져서 집을 뛰쳐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소위 히피의 병에 걸려 들었고 대부분을 약에 취하여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나는 아빠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신했고 그래서 아빠가 제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빠는 나의 행위를 탓하기는 하셨지만 나라는 인간을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기분 나쁜 여행을 했답니다. 아마 기분을 몹시 상하여 마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공할 경험이라고 술회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꿈을 꾸 조그만 어린 아이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축복을 해 주시고 나서야 정신적인 아픔과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정말 휴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정리하

게 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반항하는 것이 나쁘다고 알았으면서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아직도 넘어야 할 수 많은 고난의 언덕을 앞에 두고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를 던져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열 여덟살 된 아들을 가진,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또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삼년 전에 아들 녀석이 새로 친구를 사귀었는데—그것이 그 아이가 약을 손에 맨 첫번 연결이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설명했고 ‘네게는 약이 필요치 않다’고 누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읍니다. 나로서는 속수 무책이었습니다.

나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자 그의 반항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드디어 하루는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규율이나 질서에 따르지 않겠어요’ 라고 그는 떠들고 나섰읍니다. 이어서 그는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적어도 삼개월 이내에 집에서 나가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말하고 싶은대로 말하고 피우고 싶은대로 무엇이든 피우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가 다시 올라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쯤 듣거라. 이 집에서 살겠거든 이 집의 질서에 따르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석달이 아니라 사흘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는 직장을 얻었으며 바

로 집에서 나갔읍니다. 집에서 떠난다는 사실이 물론 모자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언제라도 내가 맞 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그 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갔고 새 직업에 관심을 가져 주었고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거처장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새로운 결심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직업을 서너개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한가지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드디어 그는 남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출자 및 약중독자를 선도하는 보호 단체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자주 그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이었습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거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하루는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과오를 범하여 꼭 죽지 않아도 될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일을 끝내 던져 버리고 참과 아름다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악과 선을 구별할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과연 부모가 모든 역경을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알아볼 권리도 저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1970년 9월 9일)

몇달 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잘 기억하리라고 믿습

니다. 조그만 소녀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의 분리대에 세워진 담을 기어 오르고 있었읍니다. 경찰관이 그 아이를 안전 지대로 옮겨 놓자 그 아이는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곳에 버려둔 사람이 바로 그 소녀의 부모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담을 꼭 잡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손을 놓지 마라.”라고 그 부모가 일렀읍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소녀를 버릴 계획이었나 봅니다. 신문은 이 사실을 대서 특필했고 기사가 너무도 상세하여 눈물을 먹음고 아랫 입술을 떨면서 자동차와 거대한 트럭이 수없이 왕래하는 고속도로의 중간에 세워진 분리대 담에 매달려,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한 부모를 기다렸다는 결의로 참을성 있게 매달려 기다리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듯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닥치는 어려움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인생의 그늘과 위험하고 황량한 벌지에 버리려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철이 늦게 들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철이 들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가 저들은 낙심케 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아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 15:20-22, 2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야 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비로써 자유로 인도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공과에는 작은 아이들을 책상 곁에 앉히고 장난감 자동차를 책상 위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사태의 결과를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족이라는 유대로 결속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요령이 이 책의 공과에는 열마든지 있습니다.

이 공과책은 가정의 밤을 일주에 한 번 갖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월요일을 일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 날

의 밤을 갖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1970년 신권 공지 사항)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언자의 축복 즉, 만일 부모가 일주에 한번씩 자녀를 한 자리에 모아 복음을 가르친다면 가족이 결코 빛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비회원 중에는, (아니 유감스럽게도 몇몇 회원도 그렇습니다) 이 공과책을 받아 들이면서도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회원으로의 임무와 각 교과의 바탕이 되는 경전 구절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



로 정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송된 지시 공문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활동과 신권 활동, 학생 활동, 청소년 체육 활동을 주관하는 역원은 본 결정에 특히 유의하여 월요일 밤에 교회 전체를 통하여 가정의 밤으로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가족은 이날 교회 활동이나 기타 순서에 완전히 손을 떼고 가정

는 그런 사람에게 이상적인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자격중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법에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제거하려는 사람은 예방 주사를 자녀에게 놓아 질병을 막으려 하면서 실제로 주사약을 뺀 빈 바늘만 들고 주사를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력을 갖었다고 생각하면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옛날 일입니다. 실제로 갖지 않았거던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일찌기 없었던 가장 훌륭한 젊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젊은이들 중에서 이미 선교사로 나가 일하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이들 젊은이를 돌려보낸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십시오. 저들이 보잘 것 없는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저들은 명예를 위하여 산다는 젊은 세대의 본보기일 수는 있습니다. 젊은이 중에는 정말 성도—말일성도라고 일컫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소망의 등을 켜지 않으시겠습니까? 막음의 고통을 지니신 여러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위대한 곳이 아무리 어둡고 황량하고 멀고 깊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결단코, 결단코, 결단코.

저는 여러분께 소망의 의지를 강화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치신 부모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없으며 자녀를 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십이사도는 모두가 특별한 증거를 가졌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비록 이 세상이 “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마음을 다친 부모 여러분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 14:17-18)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셉 필딩 스미스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하나님의 훌륭한 대회를 끝나치면서 여러분 위에 저의 축복을 빌어 드립니다.

신권이란 인류를 위한 축복을 빌 수 있는 권세이며, 신권 소유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권능을 활용하여 이웃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소유할 신권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의롭게 행사하면 그 행함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성도를 위하여 축복을 빌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들을 모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의로운 행위대로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하며 우리들에게 그토록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권세로 자유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자연의 온갖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다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고 화평과 기쁨을 얻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왕국에서 영원한 부를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바라옵건대 이 복음을 듣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흠어진 이스라엘의 잔류민의 후손에게 아버지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은 저희가 당신께 봉사하고자 함

을 아시며 계명을 지키고 온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기꺼이 전하려 함을 아시나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세상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나의 친 아들을 여러 해동안 선교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아들 하나는 외국 선교부에 나가 봉사하고 있고 벌써 몇해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종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빛과 진리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 빛과 진리의 말씀은 성신의 권세로서 온 세상에 사는 정직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로써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또 다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최선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줄 알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당신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당신의 진히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시어 저들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마태 5:16 참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지금과 영원을 잇는 모든 것의 영광과 명예를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 ○

지부가 강하게 되려면

선교부장 서 현 보

● 얼마 전 저는 모임 출석율이 아주 저조한 지부에 관한 보고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하다 보니 그 지부에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는 회원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지부 예산을 내는 회원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곧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미쳤고 이어 교리와 성약 130편 20, 21절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 보았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 지부의 회원은 십일조의 법에 좇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부는 발전할 수 없고 따라서 강해 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십일조의 법과 원리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 이야기하는 중에 만일에 우리가 이 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 발전하며 회원 또한 신앙 안에서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좇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니다. 지부 안에 이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을 수록 지부는 성장합니다.

재물을 나눈다는 원리가 각자의 성공, 행복, 구원과 지부의 성장, 발전에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십일조의 법에 따라 살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지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나 보라.”

지방부장, 지부장 여러분! 형제들은 지부 회원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주님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지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가 의로운 노력 가운데 축복을 원하고 있겠지만 진실로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리와 성약 130편 20, 21절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일조를 주님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몇 백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도 말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금식하여 두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회에 헌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생활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훌륭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십일조를 다른 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신앙의 시험입니다. 생활중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줍니다. 너무도 유명했던 매튜 카울리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고는 물질적인 번영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원리에는 물론 인류를 다시 살리는 계획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므로서 얻는 영적인 부를 생각할 때 그 뜻은 더욱 커진다.” 카울리 사도는 계속하여 자신을 신앙에 단단히 묶어 주는 간증은 순종에 기초를 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십일조의 헌납에서 보다 잘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수입중 주님의 몫을 교회에 바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선교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의 수는 십일조의 총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3년동안 이 선교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십일조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지지하여 주시고 십일조와 헌금으로 선교부를 지원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지부에서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축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열의를 다하여 주님께서 이 법을 지키는 충실한 자에게 위대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뜻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중한 결과를 맞게 되리라고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교회가 발전,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면, 만일에 여러분의 지부가 발전, 성장하며 그 속에 조화와 강력한 힘이 있기를 바란다면 회원 모두가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결과란 침체며 분쟁, 또는 논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훌륭한 원리를 깨달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지부와 한국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내게 어제 를 주십시오”

리차드 엘 이반스

● 약 3세기 전 토마스 브라운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내게는 또 다른 내가 숨어 있어서 늘 내게 화를 낸다.”¹ 이것은 자기 내부의 평화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낙담하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화를 낸다는 또 다른 우리는 누구일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인생의 빛을 기억하거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속성이거나, 남과 조화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지 못하는 우리인 것이다. 이러한 내부의 우리는 조용한 양심대로의 생활을 거부하며, 마땅히 우리가 이행해야 할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며, 그리고 어떤 때는 고의로 잘못을 범하는 우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에 관해서 엘버트 휴바드가 이야기한 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²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법과 질서의 곳이다. 자연도 법을 좇는다. 우주의 공간이나 유성은 참으로 놀라운 만큼 때와 절기를 맞춰 움직인다. 물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특정한 결과를 원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위한 과학적인 법과 기술을 선행시켜야 하며 이 세상의 기술자나 건축가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배워야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토록 복잡 다단하며 그토록 예민하며 그리고 그러한 법을 역행하면서도 최상의 삶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확대할 때 우리는 예민한 우리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산출해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 “아 하나님이지어, 우주를 제발 역행시켜 주시며 어제 를 주십시오.”³ 그러나 우리는 어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인생이란 오로지 앞으로만 움직인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더 잘 하기 위해서 개선하며 그런 가운데 의로운 목적을 위한 온전한 평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완전한 정직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릇된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화를 내는 우리를 제거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 하나님이지어, 우주를 역행시키시어 내게 어제 를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화를 내는 스스로를 갖지 않은 채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다. ○

¹ 토마스 브라운경—(1605—1682) 영국의 작가, 의사.

² 엘버트 휴바드—(1856—1915) 미국의 작가 겸 편집자.

³ 헨리 아더 폰스—(1851—1929) 영국의 극작가.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글론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00키로 씨익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원고는 KSL과 콜롬비아 방송국 방송망을 통하여 1970년 10월 4월 방송된 바 있습니다.